

2018년 11월 25일  
왕이신 그리스도주일  
(나해)

□ 교구설립 1974년 6월 1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하느님 숨결

www.skhbusan.org

Busan Diocese, Anglican Church of Korea (Daehan Sungkonghoe)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9번길 5-1 / •전화: 051)463-5742 / •팩스: 051)463-5957

공동주보 제 156호

• 2018 교구표어  
복음으로 새롭게,  
선교로 다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신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오신경 등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빛나갔을 때, 가장 먼저 신앙고백서를 읽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빛나갔다면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혹은 하느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면서 우리가 갖는 신앙이 허구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들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식과 경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해한다.’(Credo ut intelligam)고 고백한 안셀름(신학자, 캔터베리대주교)은 고백(믿음)을 통하여 참된 앎(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일에 우리의 본기도는 ‘하느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하느님을 본적도 없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었되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며 2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을 굳세게 하였으며 그들이 알게 된 수 많은 신앙고백들을 쏟아내며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라면 사도 바울로가 말한 것처럼 정말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때(1고린13:12)가 오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십니다.’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여 주님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로마 10:9-10)

✧ 이윤호 미카엘 사제(주례기도소)

(12월 2일, 대림 1주일, 묵상글 기고자 - 이재탁 사제 / 마감 11월 25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 교회

부산교구는  
‘교회다움’·‘교회다움’을  
바라봅니다.

각 교회 안내란

✦ **개회예식**

1. **입당성가** : ---장 / 다함께
2. **정심기도** (예식서 6쪽) / 집례자
3. **죄의 고백** (예식서 6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니다.
4. **기원송가 : 영광송** (성가 69장)

✦ **말씀의 전례**

5. **본기도** (예식서 13쪽) / 집례자  
(집례자)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우리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죄로 인해 갈라진 이 세상을 주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함께) 아멘.

6. **제1독서 : 사무하 23:1-7 / 김---**

7. **성시 : 시편 132:1-12 / 다함께**



- 주여, 다윗을 생각해주소서.
- 얼마나 애썼는지 | 생각|하소서.
- 주님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선|서하며
-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주님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때까지,
-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 잠자리에 들어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 어길 수 없는 진실한 맹|세이|합니다.
- 네 몸에서 난 |후손|을
- 너에게 준 왕좌에 |앉|히리|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8. **제2독서 : 묵시 1:4하-8 / 최---**

9. **찬가성가** : ---장 / 다함께

10. **복음환호송** (예식서 14쪽) / 집례자  
(집례자 특정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다함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11. **복음** : 요한 18:33-37 / 집례자
12. **설교** / 집례자
13.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예식서 16쪽)
14.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김---**

✦ **성찬의 전례**

15. **평화의 인사** (예식서 2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6. **광고** / 신자회장
  17. **봉헌성가** : ---장 / 봉헌봉사 : 석---
- (집례자 봉헌준비기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다함께) 아멘.

18. **성찬기도 - 1양식** (예식서 23쪽) / 다함께  
(감사서문 특송)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 하시나이다.

19. **거룩하시다 - A곡** (예식서 25쪽)

20. **주의 기도** (예식서 28쪽) / 다함께

21. **성체나눔** (예식서 29쪽) / 다함께

22. **하느님의 어린양 - A곡** (예식서 29쪽)

23. **영성체와 영성체성가** : ---장 / 다함께

24. **영성체 후 기도** / 다함께

(다함께) 인자하신 성부여, 비오니, 천상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파송예식**

25. **축복기도** (예식서 3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다함께) 아멘.

26. **파송과 파송성가** : ---장 / 다함께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 제48차 교구의회 결정사항들을 성심으로 실천하는 교회되도록
- 지진피해 1주년이 되는 포항성당의 복구를 위하여

교회 기도제목 추가☞

2.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가 이 땅에 온전히 이행되기를
-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를 위해 선(善)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3.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 정요셉 사제, 이리치드 사제의 치유를 위하여

교회 기도제목 추가☞

4.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

교회 기도제목 추가☞

■ 주간 기도 안내

각 교회 안내란☞



■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 복구를 위한 기도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교구를 더욱 주님의 몸 된  
교회답게 세워주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이 연약하오나  
하느님의 능력은 크시오니,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이  
하느님의 뜻 가운데 복구되고  
교회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성당 복구를 위하여  
온 교회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드리며 봉헌하오니,  
주님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되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축일에

■ 주간 축일과 전례독서

날자	전례색	축일 및 기념일	감사성찬례 전례독서
11.26	녹색		묵시 14:1-5 / 시편 24:1-6 / 루가 21:1-4
11.27	녹색		묵시 14:14-19 / 시편 96 / 루가 21:5-11
11.28	녹색		묵시 15:1-4 / 시편 98 / 루가 21:12-19
11.29	녹색		묵시 18:1-2, 21-24, 19:1-3, 9 / 시편 100 / 루가 21:20-28
11.30	홍색	사도 성 안드레아	이사 52:7-10 / 시편 19:1-6 / 로마 10:12-18 / 루가 4:18-22
12.01	녹색		묵시 11:4-12 / 시편 144:1-9 / 루가 20:27-40

